

최선을 다하자 II

강길웅 신부
광주대교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신학교에 원서도 못 내고 사범학교에 들어가 선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어렸을 때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느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성질이 고약합니다. 제가 제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다면 아마 쫓겨나도 수십 번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제가 신학교 밖에서 경험도 쌓고 고생도 하면서 제가 다듬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과 경험은 아무도 빼을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잘 안 되면 천만다행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피정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개신교 측에서 반대하니까 2년 이상 건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일에 돈이 있다고 밀어붙였다면 큰 잡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를 통해 뭘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깊은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영똥한 사건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늦게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늦게 신부가 되니, 우리 교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냉담자 많고, 가장 말썽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81년에 부제품을 받고 나자, 나주군에 노안이라는 성당이 있는 워낙 가난하고 힘든 곳이라 미국 본당 신부님이 고생, 고생하시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발령 시기도 아닌데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주교님도 당황하셔서, 교구청에서 신부님들을 교대로 보내시어 주일미사만은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제발 그 본당으로 보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흑시라도 나 말고 다른 신부가 노안에 갈까 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걱정을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사제품을 받을 땀입니다.

그때 광주교구에서 다섯 명이 사제품을 받았는데 군대에 안 갔던 아주 젊은 신부만 보좌로 나가고, 다른 넷은 보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구에서 그 해만 그랬습니다.

그때 주교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신부를 보내기는 미안한데, 강 신부가 노안으로 가라고.” 절 보고 미안하시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주교님께 그랬습니다. “주교님, 제가 노안에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교님께서는 못 들은 체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잘해보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서 말썽이 많은 곳이라 새 신부가 가면 안 됩니다. 일이 더 복잡해지고 본당이 더 어렵게 됩니다. 경험이 있

는 신부가 가야 하는 데 가겠다는 신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흑산도성당과 노안성당은 그냥 발령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갈 수 있는지 어쩐지 주교님이 직접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난 뒤에 결정하셨습니다. 갈만한 신부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새 신부 중에서 나이 많은 신부를 골랐는데 하필 거기에 가려고 1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헛소리하는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1982년 2월 4일에 벽찬 감격을 안고 노안성당에 부임하자, 신자들이 성당에 꽉 차게 나와서 저를 환영해주었습니다. 보통 주일미사에도 50명도 나오지 않은 본당인데 몇백 명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감동하여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본당이니 앞으로는 공소 만들지 말고 좋은 본당으로 발전시키자고 하자 신자들이 큰 박수로 응답해주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시라고 하자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냉담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 신부님이 오신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외국 신부님들이 계셨습니다. 왜 고민을 하셨느냐고 묻자 그분이 그랬습니다.

한국 신부님이 오시면 자기 같은 냉담자들을 성당으로 끄집어낼 텐데 끌려가야 하나 아니면 자진해서 나가야 하나. 그래서 냉담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냉담자들이 회의했다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너희들 끌려나갈래, 아니면 자진해서 나갈래.” 하고. 그러자 냉담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가자고 결정을 하고는 나오라고도 아직 안 했는데 냉담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까.

또 그날 저를 환영해주던 사목회장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신부님을 모셔서 기쁘기는 한데, 신부님 목구멍이 무섭습니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본당이 가난해서 사제생활비 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장이란 자가 첫 번 대면에서 말도 참 본데없이 했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원했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회장마저 너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시 신부님들과 똑같이 받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보리밥 먹으면 나도 보리밥 먹고, 강냉이죽 먹으면 나도 강냉이죽을 먹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82년도의 본당 1년 예산이 교무금 140만원, 주일 현금 140만 원 해서 모두 280만 원이었는데 신부에게 1년 동안 주어야 할 생활비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회장으로서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말에 결산을 해보니 1200만 원이 들어와서 교구 규정대로 사제생활비도 받을 것 다 받았고 본당 관리비나 사업비로 쓸 것 다 쓰고 오히려 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냉담자들이 많이 나와서 신자 수가 크게 불어난 탓도 있지만, 공소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쳐서 그때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임 후, 첫 번 주일미사를 하고 나오니까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저를 붙들면서 말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우리 본당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들이 가리킨 쪽을 보니 산에 정말 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저거 언제부터 있었나요?” 너무 신기해서 신자들에게 물었더니, 전에는 없었고 강 신부님이 오시니까 나타난 것이랍니다. 그래서 신자들 모두가 그 십자가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산에 올라가 보니,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면 분명히 흰 십자가

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잘 확인하고는 다시 올라가 보니, 십자가는 없고 그 자리에 자갈 무더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깔려있는 자갈무더기가 산 아래에서 보면 영락없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없던 십자가가 왜 지금에 나타났는가?

사실 내용은 이랬습니다. 82년 1월에 군 산림과에서 나와 일부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나무를 베니까 그 뒤에 있는 자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널브러진 자갈이 밑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냉담자들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몽땅 나왔을 때 기존 신자들이 우리 본당에 은총의 빛이 내렸다고 좋아했는데, 그 기쁨으로 우연히 산을 보니까 성당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81년도 여의도에서 신앙대회를 할 때 상공에서 십자가가 나타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신자들의 신앙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냉담자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몽땅 성당에 나오더니 이번에는 난데없이 십자가가 나타나서는 신자들 가슴에 불을 붙였는데 이걸 제가 하는 일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제생활비도 안 나오는 성당에서 나중엔 땅도 사고 집도 사서는 청소년수련장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4년 반 동안 있다가 다른 본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1년 뒤에 그 본당에서 장례미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할머니들이 저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신부님, 십자가

없어졌어요.” 산을 보니 정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아니, 언제 없어졌나요?”하고 물으니 강 신부님이 떠나고 나니까 없어졌답니다. 제가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자갈 무더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면 이제는 안 보입니다. 아주 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랬습니다. 벌목했을 때 자갈이 나타났다가는 6년이라는 세월 속에 다른 나무가 자라자 다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산림과에서 한 일인데, 이것이 제 사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그때 몸이 아주 아파서 여러 병원에 입원도 했고 요양도 했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본당은 아주 잘 났습니다.

여담으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감동적입니다.

제가 본래 건강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82년에 사제서품을 받기 전부터 몸이 아프더니 오랫동안 낫지를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증세는 감기 기운인데 감기는 아니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83년 9월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입원했지만, 박사들은 제가 아픈 원인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83년 9월 22일에 입원했는데 그 이틀 뒤인 24일 오후 6시경입니다. 병실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추기경님께 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시냐고 하자 추기경님이 그랬습니다. 당신 형님 신부님이 6층에 입원해 계시는데, 문병 온 김에 광주 교구 신부도 있다 해서 오셨답니다.

저는 808호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너무 황송하면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형님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

러 6층 특실에 갔습니다. 그러나 방문 온 사람들 소리가 많이 나서 노크도 못 해보고 문 앞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제품 받은 지 겨우 1년이 넘는 신부라, 어른들 앞에 나서기가 좀 어색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갔더니 역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튿날도 그리고 그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신부님이시고 추기경님 형님이시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며칠을 허탕 치고는 드디어 9월 28일 오전 10시경입니다. 병실 앞에 갔더니 조용하기에 노크를 조심스럽게 하고는 문을 열었더니 병실에는 아무도 없고 신부님만 침대에 누워계셨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김동한 신부님으로서 그분은 그때 당뇨가 심해서 눈은 이미 실명하셨고, 다리도 썩어들어 가서 이튿날 29일에는 절각하기로 이미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침상에 가까이 가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광주교구 아무개 신부데, 김수환 추기경님 방문을 받고 며칠 동안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지만 방문객들이 많아서 못 드렸다는 것과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신부님이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필립보서 1,21. 22절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한 신부님은 대구 결핵 요양원에서 환우들과 오랫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농담으로는 추기경님보다 훨씬 더 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의 삶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신부님의 상황과 연결해서는 신부님이 훌륭하게 사셨다는 것

과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동체 성가 486,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지금은 성가 책 463번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찬란한 꿈마저 말없이 사라지고 언젠가 떠나리라.” 이걸 4절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신부님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와서 기도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고맙다고 또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병실에 돌아와 내일 읽어드릴 성경 구절을 찾아놓고는 저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원목 수녀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소식 들으셨어요?”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하고 묻자 수녀님이 그랬습니다.

김동한 신부님이 오전 11경에 혼수상태로 들어가셔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오후 1시경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은 바로 대구교구로 모셔갔는데 이미 대구에 도착했을 거랍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전 10시경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시간을 몰랐는데 10시는 한참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신부님 병실에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11시경에 혼수상태에 빠지셨다면 제가 신부님한테 임종준비를 너무 잘해드린 것입니다. 성경 구절도, 하느님이 정말 저를 그분에게 보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가도.

그 후로 추기경님을 몇 번 뵈었는데 이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 말씀만 전해드렸다면 추기경님이 저에게 밥 한 그릇 사주셨을 것입니다. 말씀 못 드린 것이 아쉽기는 한데, 아마 지금쯤은 천당에서 형님 신부님을 통해 그 사실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82년에 사제품을 받았고 김동한 신부님은 45년에 받으셨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37년 대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햇병아리 시절, 신

부님께 강론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못 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2년 9월 22일에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병명도 모르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일단, 10월 8일에 퇴원하여 의왕시에 있는 '라자로 마을'에 가서 요양했습니다. 그때 이경재 원장신부님은 성당을 저한테 맡기시고 미국으로 모금 운동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라자로 마을에는 서울교구에서 은퇴하신 노기남 대주교님이 거기에서 환우들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10월 8일에 들어가서 11월 23일에 나왔으니 한 달 보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 환우들, 그리고 수녀님들과도 매우 친해졌지만, 특히 노 대주교님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큰 은총이었습니다.

노 대주교님은 농담도 잘하셔서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1년 뒤, 84년 6월 17일입니다. 라자로 마을에서 친하게 지냈던 수녀님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노 대주교님이 명동성모병원에 계시는데 위독하시니까 인사를 드리려면 얼른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레 기차를 타고 달려갔더니 주교님은 명동성모병원 521호실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자 주교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몸을 돌려 저쪽으로 누우셨습니다. 주교님은 간경화로 복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의 고통을 나에게 보이기 싫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다가가서 "주교님, 고통은 선물입니다."하면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로마8,18)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사도14,22)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시고는 제가 기도를 해드리자 당신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교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약간 더듬거리셨지만 분명하게 기도를 하시고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스무 번도 더 하셨습니다. 제가 성가 '창파에 뜬 일엽주'를 3절까지 불러드리고 곧바로 노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주교님은 8일 후 6월 25일에 선종하셨습니다.

햇병아리 신부로 가장 가난하고 힘든 본당에 있을 때 너무 소중한 분들을 만나 인연을 맺었으니,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큰 은총이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상황이 어떠한 상관없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이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려면 오늘,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22,37) 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첫째가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참기 싫어도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을 때가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며, 또 하기 싫어도 하느님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그가 최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수녀님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신부들의 이동이 있어서 인사차 시골의 모 본당을 찾아갔더니 신부님은 어디 가셨고 수녀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수녀님이라 언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신부님과 같은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이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누가 커피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심심해요.” 하는데 얼굴 보니, 정말 심심하게 생기셨습니다.

잠깐 조배를 하러 성당에 들어갔더니 젊은 수녀님이 제의방에서 나오는데 역시 못 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로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시골 생활이 어떠세요?” 수녀님이 그랬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는 바빠서 기도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았고 빠질 때도 있었는데, 시골에 오니 공기도 좋고, 방문 때마다 걸어서 하니 건강에도 너무나 좋아요.”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니 너무 좋게 생겼습니다.

사람의 처지는 다 비슷합니다.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젊어져야 할 십자가나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가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같은 처지에서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할까요?

신부님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불평하는 신부님들은 어딜 가나 불평합니다. 시골 본당에 있을 때는 시골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도시 본당에 있을 때는 도시 본당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는 자는 또 어딜 가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들이 그 뒤에 죽 나란히 서 있으며, 감사를 드리

면 감사할 일들이 그 뒤에 죽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만 보이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불평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한 일만 보이고 행복한 말만 들립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고, 계속 불평할 일만 보이고 또 불평할 일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잘 먹어도 불행하고 웃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말이 어깨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에 따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고만 하고 열매 맺는 일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면 자연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성인, 성녀들의 삶이라 해서 모두 성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오해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은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